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5:13-14)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7월 30일 (토) 제 188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기독교 해체 운동', 어느새 교회까지!

라이프웨이, '해체주의' SNS와 유명 인사 동원, 성경적 가치 해체하는 수준까지 부상했다고 경고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미국 목회자들이 "해체주의(deconstruction)"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며, 그중 4분의 1은 자신의 믿음을 재고하고 이전에 가진 믿음을 버린 교인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Most Pastors Know of Deconstruction, Fewer See It in Their Pews).

개신교 목회자들 중, 73%는 자신의 신앙을 '해체한다'는 개념에 대

해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해체를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해부 및 분석하고 자주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목회자의 4분의 1(25%)은 이 개념에 대해 "매우 친숙하다"라고 답했으며,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14%에 불과했다. 해체주의적 신학에 익숙한 목회자 가운데 27%는 '체계적으로 신앙을 해체한' 교인이 있다고 답했다.

동 리서치는 '해체'라는 용어는 지난 몇 년간 부상했고,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과 그들이 진리를 찾도록 돕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용해 왔다. 목회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해체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개념은 19세기 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인 니체(1844-1900)에서 나왔다. '영원한 세계'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삶에 대한 절대적 진리는 없고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 선이나 초월적 가치를 부인한 니체는 플라톤이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로 구분한 이원론적 형이상학에 반대했다.

니체 사상은 그가 죽은지 반세기가 지난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 철학자이며 교수인 데리다는 이성주의와 형이상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니체의 포스트모더니즘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을 발전시켜 문예비평 수단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이 해체주의이다.

데리다는 니체처럼 절대 진



리와 거짓을 분리하는 이분법의 경계선을 허물고 일원론을 주장했다. "약과 선, 진리와 거짓은 분리 될수 없고 같이 존재한다."란 정의를 내렸다. 통일성이나 동일성을 배제하고 차이점, 다른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체이론을 통해서 이성과 질서, 총체성, 크리스천 세계관을 해체한다. 그리고 이성주의의 부작용인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고에 반대하고 절대적 진리를 배제하고 전통과 권위를 해체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데리다는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곧 당도할 현재

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현재이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논리 중심의 대상인 기초와 원칙 중심과 관계된 모든, 본질, 실체, 진리, 주관, 의식, 초월성, 인식, 인간과 하나님과 같은 주제로 삼는 형이상학적 사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데리다는 형이상학적 생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정신/육체, 주관/객관, 진리/허위, 텍스트/의미, 내면/표상, 본질/현상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버리도록 제안한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와 함께 전통 자체를 해체한다.

로고스 중심주의와의 단절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니체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둔 반기독교적이다.

데리다의 철학을 문학적 개념으로 적용한 새로운 해체주의의 비평 이론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예일대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학계에서 크게 환영을 받으며 대학가와 문학, 그 해석에 관해서 서구의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탈역사주의, 그리고 감성을 중시하고 여성, 아이, 유색인, 소외 받은 비주류를 재조명했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 형상/하나님 선교 통합, 진정한 제자도! 처치리더스컴, 휘튼 대학 빌리그라함 센터 조쉬 락스톤 온전한 제자도 소개

조쉬(Josh Laxton)는 휘튼 대학 빌리그라함 센터의 공동 소장자이자, 로잔 북미 공동지역 이사이며, 동 대학의 목회, 선교, 리더십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수년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 나는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성경읽기', '기도', '교회 출석', '십일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을 언급했다.

그런 활동들 중 어느것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전 세대들을 훈련시켜 왔다는 점이다. 교회는 지금껏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성숙을 이해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훈련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행함'이나 어떤 '활동'과 같은 것들을 형식적으로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 예수를 따르는 신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하시고 왕이 되신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30년 전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자신을 따르는 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따르게 된 의식적인 결정 때문이다. 그것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회와 신자들이 제자도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의 제자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울만한 세 가지 기초를 이야기하고자 한다(Discipleship: The Convergence of the Missio Dei and the Imago Dei).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응렬 목사 3년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4년



인터뷰 류동하 목사 16년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어이(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산경 및 잇몸치료

[성경일독을 돕는 Bible Reading Guide]

2022 전문강사스쿨 신입생 모집요강

①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신 모든 분 ②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③ 스쿨일정: 2022년 9월 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④ 강의방법: ZOOM
⑤ 직전: 목회자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모교,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⑥ 사차별로 강의방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스쿨은 미얀마, 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B57(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박재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MISSIO SEMINARY, BETWEEN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시오신학교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MOU 체결

복음의 밑거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족의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돌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생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및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주·야간)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2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6일(화) - 9월8일(목) 저녁8시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경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술 쳐 먹다가 목사가 된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술 쳐 먹다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다. 놀라지 마시기를. 일단 필자 이야기는 아니다. 뉴욕에 많이 알려지신 목사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야기이다.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함께해야 할 일이 있어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좋으신 목사님이시다. 지난 주일 저녁에 뉴욕 교계의 한 행사가 있었는데 뉴저지 목사님들까지 70명 가까이 모이셨고 그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맡으신 것이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그분의 목사가 된 이유를 설교 가운데 듣게 된 것이다. 목사로의 부름은 다양한데 술 쳐 먹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또 있으신가.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다.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 이민 목회자이신 아버님 목사님은 40세에 목사 안수받으시고, 43세 목회 시작하시고, 47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셨는데 미국에 유학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족의 고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여서 월급은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 거기에 다 그 교회에는 원로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원로 사모님이 예배 반주까지 하셨다고 한다. 그 사모님은 아주 특이해서 주보에 280장이라고 적혀있는데도 387장을 전주로 치셨다고 한다. 아버님 목사님이 "사모님, 280장인데요."라고 말하면 사모님이 "그냥 합시다" 하면서 계속 387장을 반주하셨다는 것이다. 자기가 볼 때 그 원로목사 사모님이 마치 XX할멈 같았다고 한다. 목사님은 이런 것이 보기 싫었고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술을 쳐 먹고(본인 표현)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아버님이 원망을 늘어놓았다. "코딱지만 한 교회 월급도 못 받는 교회, 쪽팔려요. 목회 그만두세요." 그런 아들의 술주정 같은 불만을 늘 듣던 아버님이 추수감사주일 설교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천국으로 가셨다. 어머니가 박스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그 박스 안에 아버님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 일기를 읽다가 목사가 되길 결심하셨다고 한다.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시어 힘들게 살아가셨던 아버님이 남기신 일기장 가운데 목회하시던 때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원로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나 같은 자를 후임으로 불러주시다니." "나는 하나님께 원로 사모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사모님이 노구(老耄)를 끌고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다니." 그리고 매 일기 끝에는 꼭 "술과 피에, 술과 그라티아"라고 쓰셨다. 이들은 목회하는 아버님이 부끄러웠는데 정작 아버님은 너무 감사하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신 것이다. 아버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술 쳐 먹는 삶을 그치고 "나도 아버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유난히도 더웠던 뉴욕의 여름날 주일 저녁. 그날따라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었던 교회당에서 결코 짧지 않은 설교였는데 정말이지 힘들지 않았다. 설교 가운데 "무엇이 목사의 진정한 행복인가?"를 깊이 묵상케 한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행복한 목회가 아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했다. 목회는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무엇인가. 그중에 하나는 배반까지 하지 않았는가. 머리 돌 곳도 없었던 예수님의 목양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셨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이다. 오늘의 목회 행복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미국 총기 규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나(1)

BBC, 바이든 행정부 총기 규제 법안 서명으로 총기 폭력 사건 대처에 한 걸음 나아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여전히 여러 한계가 있다. 그래도 갈수록 증가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사회가 내딛는 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총기 소유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총기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 모두 총기 폭력 사건 확대 방지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안토니 저커 BBC 기자가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분석해봤다(What comes next for US gun control?). 다음 호까지 두 번 나누어서 연재한다.

'레드 플래그'법의 미래 '극도 위험 보호 명령'으로도 알려진 '레드 플래그(붉은 깃발)'법은 판사가 위험하다고 판결한 사람에게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총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총기 소유자가 전과나 정신질환 전력이 없어도 총기 압수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레드 플래그'법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총기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현재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레드 플래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화당이 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오직 플로리다와 인디애나주 단 2곳뿐이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전역이 그 대상으로 해당하는 건 아니다. 해당 법은 '레드 플래그'법을 각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를 시행하는 주에 7억5000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레드 플래그'법을 제정려 다는 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또한 고위험인물을 빨리 파악해 이들의 총기를 신속히 압수해야만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 명시한 총기 소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연방 법원이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총기 금지 구역 확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병원 등에선 연방법에 따라 총기 소지



가 금지돼 있다. 이러한 이른바 '총기 금지 구역'이 미국에 얼마나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구역이 학살자들에게 쉬운 목표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선 불법 총기가 연루된 폭력 범죄가 잦다고 지적한다.

현 상황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민감한" 장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은? 총기 논쟁의 양 진영 모두 '총기 금지 구역'을 지정하지는 생각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는 이러한 구역 지정이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범죄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총기 폭력이 너무나도 잦은 나라에서 이는 반쪽짜리 조치라고 본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미 연방법은 21세 미만에게 총기나 산탄총과 같은 장총은 허용하지만, 권총 구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카고 하이랜드파크, 뉴욕주 버팔로,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등 여러 총기 난사범은 21세 이하였음에도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폭력을 예고하는 등 사전에 여러 위험 신호가 감지됐던 범인들도 있었다. 범죄 기록 및 정신건강 신원 조회 등에서 걸러져야 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현 상황은? 이번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18~20세 사이 총기 구매자의 미성년 범죄 기록 및 정신건강 기록을 FBI의 신원 조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21살 미만의 총기 구매자의 경우 최소 열흘간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 다음은?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관련 규제는 아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젊은 남성이 총기 난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애당초 효과가 크게 없어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종류의 무기 구매에 하한 연령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5월 미 대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만

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총기 소지 연령 제한법은 위기에 처했다.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 미국 내 일부 경찰서는 운영비 일부를 할애해 더 이상 원치 않는 총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총기 범죄에 신물이 난 미국 시민들은 심지어 총기 반납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총기 반납 프로그램에 대해 사소한 친지의 총기 등 반갑지 않은 총기가 길거리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 상황은? 앞서 6월 마이애미 경찰은 총기를 반납한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서 총기 반납 행사에서 거둬드린 총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을 반납하는 대가로 식료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도시도 있다.

강력범죄에 사용되는 많은 총이 도난 혹은 불법 총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다락방이나 옷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총을 수거하면 이 총이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총기 반납 프로그램은 순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장점 덕에 그 어떠한 총기 규제도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국민 수보다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가 더 많은 국가이며, 매년 추가 생산되는 총기가 수백만 정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당국엔 좋은 홍보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총기 반납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2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기독교 해체 운동' ...

(1면에서 계속)

결국 해체사상 흐름은 스마트폰 발전과 SNS 그리고 주류 언론과 함께 더 증가되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미디어 코디네이터, 조슈아 아놀드는 "최신 유행하는 해시태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현명하게 보이도록 유혹한다"며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 '해체(#deconstruction)'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게시

물이 29만 3천 26개나 있다"고 지적했다('I am the master of my faith': How dumping Christianity is trending).

그는 변증론 작가인 알리사 칠더스(Alisa Childers)의 말을 인용해 "대다수는 기독교에서 개종했거나, 진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동성의 결혼 및 관계를 수용하고, 신앙의 핵심적인 역사적 교리를 부정하거나, 백인 기독교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려는 임무를 띤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FRC성서세계관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오웬 스트라찬(Owen Strachan) 박사의

말을 인용, "해체 운동은 기독교 유명 인사, 음악가, 젊고 인성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대열에서 모집한다"며 "해체는 건전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파괴 그 자체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해체가 진정한 믿음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당신이 배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이라는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스트라찬은 "해롭지 않아 보이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해체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모 세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한다"

고 했다.

결론으로, 해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반 기독교적이다. 성경에 해체주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 체계가 허물어질 뿐 아니라, 성경은 더 이상 진실일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신실하신 분이 될 수 없다. 또한 성경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언제가 해체주의가 해체 되는 날을 보기를 소망해야 한다.



시론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어 낸다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이번 달에 한국 사회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허준이 교수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는 Fields Medal(필즈상)을 수상했다. Fields Medal은 1936년부터 세계 수학계에 공헌한 사람 가운데 40세이하에게만 수여하는 특별한 상이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계로 이 상을 최초로 받았으며, 아시아에서 8번째 이 상을 받게 되었다. 허준이 교수가 특별한 관심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수학에 뛰어난 사람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는 것조차 힘들어 부모님을 좌절시킨 학생

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제도권 교육이 맞지 않아 자퇴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6년 만에 졸업했으며 그의 성적표에는 D, F 학점도 수두룩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쉽지 않았다. 이미 필즈 상을 수상한 세계 석학이 미국에 12학교에 추천했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교는 한 곳 뿐이었다.

허준이 교수처럼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허준이 교수가 보여준 특별한 점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많은 역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인생이라는 점이다. 인생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랐을 때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은 다가온다. 시험에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다. 시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도 있다. 차이는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돌 목사가 한 말이 있다. "Life is 10% what happens to you and 90% how you react to it"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하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90%를 차지한다). 인생은 사건 자체보다 반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성경의 아보고서는 시험이라는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그만큼 시험이 많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다. 페라리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험과 사탄이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 시험이나 고난은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험은 의미가 다르다.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일이 목적인다. 유능한 뱃사공이란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때 탄생한다. 광야를 지나갈 때 평소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체험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경험한다.

배를 만들 때 가장 강한 나무는 뿔대로 사용한다.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뿔대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먼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뿔대로 쓸 튼튼한 나무를 고른다.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바람을 막을 만한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린다. 뿔대로 쓸 나무만 홀로 남아서 거센 바람, 폭우, 눈보라를 견뎌낸다.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보통나무보다 훨씬 튼튼하고 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10년을 키운 나무를 배의 뿔대로 만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견고한 사람이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수많은 인생 시험과 고난을 거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작가다. 톨스토이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가 두 살 때 어머니는 딸을 낳다가 죽었고, 아버지는 9살 때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들 먼저 보아야 했고 형도 30대에 세상을 떠났다.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고난에 대해 그가 한 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온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 해야 할 기도가 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이 저를 지배해서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소서. 이 모든 시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하나님 형상/하나님 선교...

(1면에서 계속)

1. 산산조각난 인류의 형상

하루를 시작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양치질을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옷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거울을 사용하려고 꺼내면서 바닥에 떨어 산산조각이 난 거울을 상상해보라. 그렇게 깨진 거울을 보게 된다면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가? 왜곡되고 부서지고 파편화된 이미지. 결과적으로 거울은 더 이상 전체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 거울은 여전히 어떤 이미지를 반사하고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산산조각이 난 조각마다 손상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게 된다.

인간은 창조된 질서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창조되었다(창 1:26).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존 칼빈(John Calvin)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반영할 것이며, 이는 생각과 의지와 모든 감각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타락(죄를 지음)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죄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반영과 묘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왜곡하고 손상시키고 굴절시켰다. 그리고 이 산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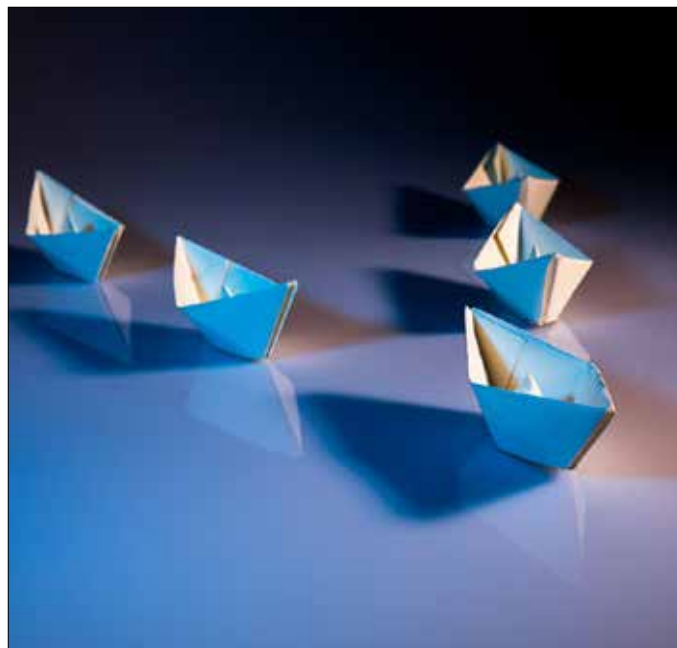
각난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체성의 위기, 이미지 문제, 인종 차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폭력 등은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산산조각 낸 결과다.

2. Imago Dei(하나님의 형상)를 복원하는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성품, 본성, 특성을 반영하는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완전한 연합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교통을 단절하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다시 말해, 죄는 그들의 본성을 훼손했고, 따라서 그들이 기능하는 방식을 손상시켰다.

창조 명령안에는 관계, 문화, 청지기라는 인간의 세 가지 큰 삶의 주제가 들어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손상된 이미지를 가진 자들로 단절된 관계, 부패한 문화, 권력을 갈망하는 개인과 민족이라는 전반적으로 손상되고 불성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서 미시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발견되며, 때때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문화를 부패시키고,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Missio Dei의 핵심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Francis Dubose'는 그의 작품인 <God who send>에서 Imago Dei(하나님의 형상)와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는 "인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다. 그리고 신앙성경의 주요 구원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그 형상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몇몇 곳에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이 개념을 포착한다(골 3:10, 롬 5:12-21, 8:29, 고전 15:45-49, 고후 3:12-18). 'Dubos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초기 파송)이 첫 번째 가족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종 사명(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파송)은 구속 받은 자들의 새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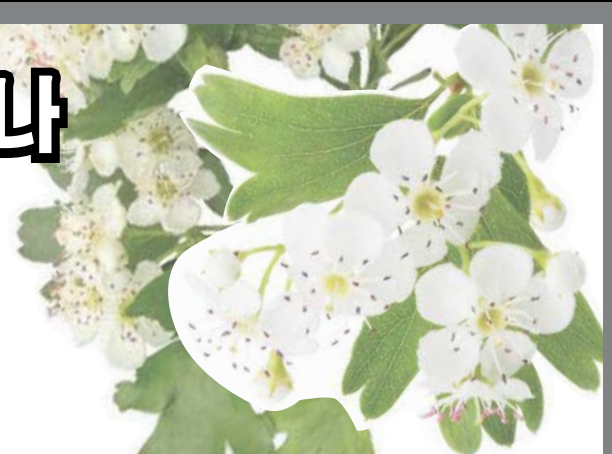
3. 제자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 제자 삼는 일에는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두 부분이 있다. 세례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순종적인 행위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제자도는 선교와 하나님의 형상의 통합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예수님의 형상과 형상을 본받아 참된 인간의 의미를 배우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N.T. Wright'는 그의 책 <Simply Christian>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거듭난 인간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그 최종 구속을 여전히 갈망하며 신음하는 세상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궁극적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제10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세미나 청교도와 혼인



할렐루야! 코비드 - 19 변종이 창궐하는 펜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자녀된 성도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청교도복음연구회에서는 많은 청교도 연구중에서 미국청교도의 경건생활과 실생활에 관계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청교도 신앙유적지를 찾아 현장에서 예배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22년에는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Zoom 세미나를 하오니 결혼 폐기론이나 무용론이 펜데믹 이상으로 난무하는 현 시대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과 성도 복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하는가, 그 해답을 성경과 성경대로 살고자 실천한 청교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 준비하였사오니 Zoom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김필식 목사 올림 2022.7
KAM 총회1장,청교도 복음 연구회 회장,UTS 학장,영림교회 담임

일 시 :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11시 30분
Zoom : 당일 오전 9시 30분 사전 신청자께 개별 통지 및 초대
주 최 : 청교도복음연구회 (회장 김필식목사) / 주관: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 (원장 김경옥목사)

신청 및 회비: 8월 30일전 도착, 선착순 40명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수표발급단 메오에 기재) 10불 (준비비 - 당일 30분전, 특전 - 세미나 직후 이메일로 모든 내용 송고) 수표 및 주소 : Hee Soo Kim , 29-05 162St. Flushing NY11358
연 락 처: 718 939-8278 김필식목사 (녹음) 줌호스트 917 399-6764
이창중목사 / 82 (0)10 2816-3475 김경옥목사 (카톡문자)

예배

■ 사회 장숙희 목사 ■ 설교 윤성태 목사 (시 127:1-5 청교도의 기원과 정신) ■ 축도 김필식 목사

세미나

루터와 청교도의 결혼관 비교연구	김영호 목사	(역사신학 교수, 미주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1982년 설립)
교황주의의 특신제도와 청교도의 혼인 비교(갈변포함)	김경옥 목사	(미국간교회 담임 웨민총회신학교 교수)
성경적 결혼관	이창중 목사	(뉴욕동서교회 담임, UTS 교수)
개혁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권현익 목사	프랑스선교사 저서 <16세기종교개혁 이전의 참교회의 역사>, <기오파렐> 외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혼관	최기성 목사	(Dobbs Ferry 한인교회 담임, UTS교수)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할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서 끝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다가도 갑자기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예측 불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적용할 때 일이 잘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잘된 일이 내일 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일을 형통치 못하게 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귀한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빛과 사랑’이란 책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집 출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편하니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

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때 일 밀어보아라. 그 때에 그 사람은 희망을 품고 그 바위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지만 바위가 꿈쩍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자로 재어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우는 거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을 보아라. 그는 잠에서 깨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렇게 기침을 했었는데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람과 같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 그것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느라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견디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니 일 인치도 움직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8개월 동안의 수고도 헛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앉아 영영 울었다고 합니다.

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나 나는 네게 그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제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시라큐스 한인교회)



초대 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행 8:1). 흠어진 기독교인들, 즉 디아스포라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행 11:20).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이름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인구 50만 명에 이르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였고, 당시 로마처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상숭배자들의 핍박을 받았으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파송받은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로 초청을 합니다.

을 주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 하시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바라바와 바울입니다. 이들 모두 출신 배경과 인종이 다른 것을 보면 아마도 안

음과 사명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세우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따로 세우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3:2). ‘따로 세우다’라는 헬라어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갈 2:7, 8).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의 사명은 모두 한 가지 목적, 즉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나 재정, 사역들을 채워가는 것에 급급하여 일꾼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가는 일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다욱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 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고 보냈습니다. 헬라어로 ‘보내다’는 말은 ‘파송한다’(아포스탈로)는 의미합니다. 헬라어 아포스탈로는 ‘~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의미로 써 이는 선교사는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것로부터, 육체에 묶인 것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세상에 보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선교사, 목회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요 20:21; 17:8).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력과 권위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보내심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교사의 기록한 회고를 통해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빛진 자로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렘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종종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그때마다 렘브란트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멀리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며 주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여행해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이웃에와 있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리고 보내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우리를 따로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오고 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며, 늘 동행하시며,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기를 소망합니다.

workman4yeshua@gmail.com

부르심, 세우심, 그리고 보내심

사도행전 13:1-3



성경을 보면 바나바 바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70인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까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the sent)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단어들 있습니다. “교회”와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입니다.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apostolos)’로,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부르심”은 소명(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내심”은 사명(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므로써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욱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 유대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립이나 갈등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

가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양해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이곳에 왔던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앞서 살펴본대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같은 생소한 이름들의 인물들도 바나바와 바울과 대등하게 기록될 만큼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세우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셔서 준비케 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안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요 3:16).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입니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능

소설같은 이야기

뉴욕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시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열네 살밖에 나지 않는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라는 분이 청소년이었을 때, 어찌다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항상 자신의 출생 자체가 주변에 축복이 되지 못했으며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런 못한 인생으로 출발했다는 그런 의식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만사에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생긴 외모가 아버지는 머리가 안 빠지고 얼굴이 길쭉한 미남형인데 반해, 아들은 머리가 벗겨져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 부자지간이라고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담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아들에게는 아주 짜증나고 못마땅해하는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그는

자지간의 상황을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아버지는 뉴욕에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임종이 임박한 중에도, 그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아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봐 교회 목사님에게만 연락을 하고는 일부러 격리된 병실에서 조용히 임종을 맞이했다고 한다. 목사님도 다급한 중에,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들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는 것이다.

질서의 파괴와 혼돈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 가족 간에도 용서와 화해가 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의 정형이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의 질서, 영적인 질서, 인간에게 주신 운명 같은 관계 등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위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무섭게 여기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영적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무너져

이 되는 것이다.

권력의지가 있던 밋세바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밋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 솔로몬의 대응이 무엇이었나? 그 형을 당장 쳐 죽여 버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된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을까? 아주 명백하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인데, 이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중하여 눈이 가려진 어미 밋세바에 비해, 초기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의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때였다. 질서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권력보다, 부모와 자식간의 질서를 무너뜨림에 대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킬 때, 그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며, 이것이 곧 회복이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자연에도 모든 것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 질서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예배의 질서를 알고 지키는 것은, 그저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훼손되고 무너짐으로, 그 영적 질서의 파괴로 인한 삶의 양식들의 파괴가 붓물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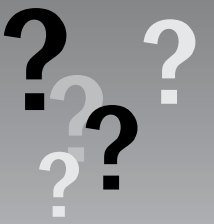
이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삶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해치우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 차라리 드리고 오자는 태도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의 아름다운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케 하는 것이다.

영적질서의 회복

이렇게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영적 질서를 바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미국 초창기에 온 청교도들이 102명이 온 후에도 또 왔는지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로미타에서 권명옥 권사

A: 미국 건국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puritan) 즉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 Fathers)입니다. 이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May Flower)를 타고 화란에서 대서양을 건너 뉴잉글랜드로 온 영국의 '분리주의자들'(The Separatists)이라고 부르는 청교도의 한 급진적 분파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국교회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분리되어 따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미국에 온 청교도의 수입니다. 비 분리주의는 그레도 영국 국 교회에 남아서 개혁하지는자들입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온 후로 10년이 지난 후인 1630년에 비 분리주의자인 "존 윈스럼" 을 중심으로 1,000명의 청교도들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도 영국 국교회에 남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언덕 위의 도시(city on a hill)" 를 세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성경이 범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세운 기독교 교육 기관”

성경 중심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고자 이 신대륙에 왔던 것입니다. 그 후로 1640년 사이에 거의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인 뉴잉글랜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은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민 온 청교도 목사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깊은 기독교적 뿌리를 가지고 태동했습니다. 1636년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 위치한 뉴타운에 존하바드 목사의 유언에 따라 작은 대학 하나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하버드대학입니다. 설립목적은 보스턴지역에 목사를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쌍벽을 이루는 예일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대학교도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 1701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러나 7-80년이 흘러가면서 학교가 영성보다 학문 쪽으로 치우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746년 좌경화되어가는 하버드와 예일대학에 대항해서 바른 신학으로 올바른 목회자를 키워내겠다는 목적으로 뉴저지에 세워진 것이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 3대 총장으로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렇게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세운 기독교 교육 기관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

- 예배를 회복하라

자신을 그렇게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를 원망해가며, 이 모양 저 모양 정 없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아들도 이제는 장가를 가게 되었고 나이도 조금씩 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차마 하지 말아야 될 패륜아 같은 짓을 그날 밤에 하고 말았던 것이다. 술을 마시고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향해 '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냐?'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후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맞는 것이 겁이 나서 끔찍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자신이 술김에 한 것이니, 자신의 행동들을 용서해달라고 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말고를 떠나, 아들만 보면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식이 용서를 빌어도, 또 옆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잘 바뀌지 못했다고 한다. 마치 뭔가에 붙잡혀있는 듯이, 뭔가에 씌인 듯이 전혀 열릴 생각을 못하더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회복시킬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부

내린 것이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것을 '혼돈과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혼돈과 파괴의 형태 속에서는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친밀한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질서가 없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질서가 있다. 질서를 파괴하면, 죄가 찾아오고, 마침내 멸망과 파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이다. 사단은 질서의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질서의 하나님, 축복

성경의 예를 찾아보자.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젊은 여자아이 동녀 하나를 구해 와서 그에게 붙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자와 부부관계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있어도 그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윗이 죽게 되니까 아들 아도니아가 밋세바에게 달려와서 말한다.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그 여자를 자신에게 주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어도 내가 이것을 합당하게 인정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아버지가 손대지 않았다고 하여도, 아들이 와서 그 여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막장드라마 같은 내용

타락, 은혜와 율법

특히 신앙이 좋으면, 질서를 잘 알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는 순간, 타락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는 법이다. 타락이 무엇인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시험 든 성도가 외치며, 은혜 떨어진 교회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걸 가지고 교회 갔다 왔더니, 목사가 혼자 툭 털어놓아서 자기 입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대단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십일조를 율법으로 우기면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를 그저 목사가 성경해석을 자기 입장에서 하지 못한 부적합한 율법주의 탓으로 몰아가는 이상한 행태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주일성수와 안식일, 십일조, 새벽예배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은혜이고, 하기 싫은 모든 것은 모두가 율법이라는 편지를 하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당연한 감사의 풍성과 의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복, 질서의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질서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

게 세우는 것을 회복이라고 한다.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귀(回歸)가 아니라, 본질로의 회복(回復)이 예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질서의 기초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바로 예배이다. 구원의 회복이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의 최고의 표식도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이다. 온전한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다.

예배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토지 목사님은 예배가 상실된 시대를 표현하기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산, 바로 그 농부의 마음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교회의 예배가 마치 잃어버린 보석 같아져 버린 것이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 보석이 없다. 교회는 온갖 것으로 빛이 나지만, 가장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가 실종되었다. 오늘날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까지 말한다.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배이다.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그 인생도 실패가 된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davidnjeon@yahoo.com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홍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 오전 World 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회 목사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정소 시흥 청조사서면사박물관(관장 박승식 목사) 부천 예림교회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월) 오후 세중 소망교회 (최은숙 목사) 010-9549-0035
4(목) 저녁 세중 평화의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041) 852-2211
5(금)~6(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8(월)~11(목) 진안 임마누엘 냉천수암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12(금) 오전 한국기독교 원로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원훈 장로) 차기회장 백 일 장로) 010-6272-7004 정소 서울 종로 연합전도회관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명자 목사 010-5603-4997
12(금) 오후 정소 서울 종로 연합전도회관
14(주) 오전 수원신성장로교회 (노준호 목사) 010-3350-9698 제 225차 해외성회 (225th Overseas Assembly)
15(월) 일본 (JAPAN) 동경 나라다 김철삼총장총회 (원장 김철삼 선교사) 81 90 6535-9118
16(화) 일본 (JAPAN) 동경 유에노 예수사랑교회 (원장 김철삼 선교사) (Rev Stepan jung 선교사)
17(수) 일본 (JAPAN) 동경 나라다 예수사랑교회 (Rev Stepan jung 선교사)
18(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구현 노수인 목요장로교회 (원장 김철삼 선교사) (Rev Stepan jung 선교사)
19(금) 일본 (JAPAN) 동경 나라다 총회신학교 정구강의
22(월)~26(금) 베트남 (Vietnam)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신영호 목사)교육부장 김광석 목사 010-8920-3541 정소 PUKLOK Milla hotel 강사 피종진 목사 (남서울 중영교회)
30(화)~9.1(목)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전퍼런스 Conference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정소 : 제주시 오솔로호텔 Lecture Hall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영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나의 남은 인생길’

인생이란 것은 놀라운 신비 기회이며 큰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허락된 의무이며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나아가지를 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보여 주듯이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실존을 숙지하며 소중한 일회적 인생을 잘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 “눈물의 컷 탈락”이란 소식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골프로 일어나고 골프로 성공하고 골프로 큰 부를 이루고 명성을 얻고 골퍼들의 사랑을 받은 걸출한 골퍼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눈물짓는 골프 황제가 뒀을 보고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겨 주시는 공효의 은혜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긍정적인 언어와 사고로 채워야 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소명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가의 가사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cyd777@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교회·무료급식 복지단체도 인플레이션 불뚱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교회와 기독교 복지단체의 비용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료 급식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18일(현지시간) 급식소의 식품 저장고가 인플레이션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무료 급식을 진행하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실태를 보도했다. 지난 13일 미 정부 발표를 보면 곡물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약 14%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는 8%, 버터와 마가린은 26%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까지 1년간 60% 가까이 급상승했다.

CT는 인플레이션으로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교회와 단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식재료와 가스 전기 등의 비용이 오른 데다 무료 급식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캔터키주 스텐스의 크로스로드커뮤니티교회 교회는 무료 급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회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 타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오른 물가만큼 수입이 인상되지 않은 사람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노스사이드푸드팬트리에서는 지난해 봄만 해도 월 6500달러를 지출했는데 올해는 한 달 평균 1만2000달러를 썼다.

노스사이드푸드팬트리 코디네이터 리사 엔라이트씨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우리도 부족한 게 많다는 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교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 일주일에 400가구에 무료 급식을 공급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서 250가구로 떨어졌다가 지난 5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다시 325가구까지 증가했다.

이 교회 식재료 보관 책임자인 데이비스 하인즈씨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있다. 가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아 종식에 힘쓰는 기독교 단체 ‘세계를 위한 빵(Bread for the World)’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헤더 테일러 이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와 곡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교회와 자선단체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타오르듯 덥다’ 미국 최악 폭염 기록이 수천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미국의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359개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다고 약시오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역대 가장 더운 밤새 최저기온 기록도 709개가 나왔다. 지난 30일 동안 1403개의 새로운 일 최고기온 기록, 2856개의 가장 따뜻한 밤새 최저기온 기록이 나왔다.



이날도 이상 고온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 30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표됐고,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속출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최고 기온이 섭씨 37.8도까지 올라가 7월 24일 기온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1933년 36.6도를 넘어섰다. 이날 예정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도 다음 달 21일로 연기됐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폭염 비상사태를 25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시내 10여 곳에 냉방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뉴저지주 뉴어크는 이날 38.9도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세웠다. 뉴어크는 5일 연속 37.8도를 넘어섰으며, 1931년 관련 내용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장기록도 만들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36.7도)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37.2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36.1도)도 종전 기록을 넘어선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뉴욕시에서는 전날 온열 관련 질환으로 1명이 사망했다. 이날도 더위가 이어져 뉴욕시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사이클과 마라톤 부분 거리를 단축한 상태로 진행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체감기온 39.4도 이상의 ‘위험 수준’ 열파에 노출된 미국인이 모두 7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동부 연안과 캔자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등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테네시주도 폭염 영향권에 놓였다.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계속 확산해 지난 22일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캘리포니아 산림청은 불길이 56km 이상의 산림을 태워버렸다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마리포사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화재가 발생한 인근 마을 주민 6000여 명이 대피했다.

군부정권이 장악한 미얀마 인구 40%가 빈곤층으로 전락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빈곤층은 전체 인구 5500만명의 약 40%인 2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현지 언론 이라와디는 2005년 48.2%였던 빈곤율이 2017년에는 24.8%까지 떨어졌다고 이 는 지난 15년 동안 못 본 수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군사독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기준에 의하면 미얀마 빈곤층은 하루 생활비가 약 1590짖(약 1000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얀마 소비자 물가가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미얀마 국민의 생활고는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7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미얀마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끝나는 회계연도에 미얀마는 3% 성장 폭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미얀마가 군과 민중화 세력 간의 충돌과 재정 문제로 인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봤다. 지난해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로,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1962년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또 이들 군정은 수입 규제와 계속된 외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수출입 시장을 파괴해 양곤과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연료 부족 현상이 촉발되고 있다. 의약품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폐 질환용 항생제, 당뇨병약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가격 역시 올해 4월 의약품 수입 규제를 강화한 탓에 5~10%가량 올랐다.

군부는 지역 경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지난 15일 미얀마군은 최근 시민군의 통제 아래에 있던 유정들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지폈다. 미얀마 군이 민간 소유의 연세 유정까지 파괴하면서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원숭이 두창’ 한달 만에 5배 증가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두 달여 만에 1만6800여명까지 확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염자 10명 중 7명은 미국과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에서 나왔다.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계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1만6836명이다. 스페인이 3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890명, 독일 2268명, 영국 2208명, 프랑스 1567명 등 순이다. 상위 5개국 감염자가 1만2058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한다. 확진 사례는 75개국에서 나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 유럽 여러 국가에서 20~30명 수준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지난 6월 25일에는 40개국 3000여명까지 확산했다. 이후 다시 한 달 만에 5배가 증가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두창도 글로벌 비상사태가 됐다”고 선언했다. 2007년 이후 일곱 번째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에볼라바이러스 등 확산 때 나왔다. 현재는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 PHEIC가 유지되고 있다.

엘런 ‘경기침체 징후 없다’

재닛 엘런 미 재무 장관은 강력한 노동 시장을 근거로 경기 침체 없는 경제 연속 가능성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등이 모두 하락 전망되면서 경기침체 비판론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나와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GDP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엘런 장관은 이에 대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이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NBER은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비영리 경제학자 그룹이다. 통상 ‘경제 전반에 걸쳐 수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를 경기침체로 정의하고 있다.

엘런 장관은 “우리는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며 “현재 경제는 경기 침체에 처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기 둔화 지표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엘런 장관은 특히 “미국은 강력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달에 4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며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 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곧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2.5%까지 오르게 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는 주택이나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지출을 줄이고, 기업 투자도 줄여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기준주목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지난달 신규주택판매 수치도 위축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실적 하락에 직면했고, 경기둔화를 대비한 고용감축에도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그룹들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인력 감축 방침을 밝혔다. 애플도 이번 주 실적 발표 때 이를 암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는 지난주 “올 하반기 미국은 가벼운 경기 침체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 성경의 무오성 (The inerrancy of Scripture):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는 그루텐의 <조직신학>을 주로 참고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성경의 영감설은 주장하지만, 성경의 무오성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무오하시지만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혹은 성경이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오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다. 유한이 무한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finitum non capax infiniti), 당연히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해서만 무오하다고 하며, 성경의 무오성은 부인한다. 그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을 마치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말한다.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이론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무오성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무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전혀 오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무오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직접 관계가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충분 함하다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도 성경을 보존 전달하는 과정도 모두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 성경이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오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다”라고 말하지 “지구가 자전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이다. 또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할 때도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20불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19불 혹은 21불이다. 이 경우에 “너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 오차는 상식적으로 서로가 인정하는 오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50불 혹은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일 것이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12:41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고 하고, 창 15:13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예언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기간은 430년이다. 그러

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 형용사를 사용해야 하는 데 여성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법적인 불규칙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의사 전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법에 맞지 않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꼭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지 못하다고 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진설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이 거짓인 경우도 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문법 기준으로 볼 때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오하다. 왜냐하면 그 내

경의 inerrant는 믿지 아니하는 학자들도 있다.

원래는 infallible이라는 말과 inerrant는 서로 호환해서 사용했고, 같은 의미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는 의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inerrant (무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infallible과 inerrant를 모두 믿는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진실하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

확하게 알 수 있다. 꼭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글 성경에도,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혹은 “고대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라고 되었다, 첨가되었다” 말들이 각주에 표기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사본을 읽으면 원본의 문맥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사본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브루스 매즈거 (Bruce M. Metzger)의 신약의 사본학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st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의 책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원본이 무오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무오하다는 주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사본들은 결국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c) 성경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류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연구하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성경의 언어학적, 역사적, 과학적, 상황적인 증거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성경의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참고 책들은 글리슨 아처(Gleason L. Archer)의 <성경 난제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the Bible Difficulty), 윌터 C. 카이저 외에 여러 명의 공저 <IVP 성경난제주석> 그리고 William Arndt,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는 매우 유용한 책들이다.

그리고 성경이 19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지난 1900년간 항상 존재해 온 문제들이다. 성경에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 이상 교회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굳게 믿었다. 최근에도 매우 유능한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더욱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나 400년이라는 기록도 틀린 말이 아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앞에서 30년의 근사치는 일상의 의사소통에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를 놓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거리는 일반적으로 3000마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2,789마일이다. 그런데 3000 마일이라고

용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3)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인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은 무오하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헬라어 문장에는 따옴표가 없다. 단지 인용한 내용이 진실하면 문제가 없다. 각 단어를 정확하게

로 기록되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주제에서 정확 무오하다.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이 믿음과 행위에서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무오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들이 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무오 할 수밖에 없다.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며,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이다.

해도 틀렸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그 정도의 오차는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다.

2) 성경에 특이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오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성경 저자들의 기록 속에 문법적으로 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문장의 진실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우리가 볼 때에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러나 수천 년 전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사실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소통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문법의 규칙이 단수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복수 동사를 사용

인용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했다. 실제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인용하지 아니해도 성경의 무오성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인용된 내용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4)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반대 논리들

(a) 성경은 단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만 무오하다.

성경 내용 중에 교리와 삶의 지침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건의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종 성경의 무오 (infallible)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무오 (inerrant)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성경의 infallible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

류가 없는 진실된 사건임을 주장한다.

(b) 우리는 무오한 성경 사본 (manuscript)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성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무오의 원본에 해당되는 것이 지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본이 없고, 단지 성경의 사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원본만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 사본들 사이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성경 학자들의 연구로 사본학의 매우 발달하여 거의 원본과 같은 성경의 본문을 구성했다. 사본들의 문맥을 보면 원본의 내용들을 정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뷰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안디옥교회,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multiple location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3)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7장 죄를 죽이기 위한 기초와 원리

1)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죽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다. 그런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그러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라고 울부짖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교만, 분노, 악의, 잔인함 등과 같은 죄를 죽이라고 했는가? 아니다. 대신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들의 영혼이 먼저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들이 찌른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이 낮아져서 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나무의 품종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점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렇듯 노력으로 죄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세심함으로 마음과 생각에 대항해서 싸울지라도 결국 그

역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은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질 수 있다. 말씀 전파자는 항상 특정한 죄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 죄인에게 자신의 전체적 상황을 깨닫게 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단순히 그들의 특정한 죄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그들의 전체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신봉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죽이도록 강요할 뿐, 믿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동시에 죄를 죽이는 삶을 자랑하는 이들의 행위는 실제로 수치 속에서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다. 자신들에게 죄와 정욕을 고백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적어도

집착해서 그것을 막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영적 상태와 기질들을 간과한다면 똑같은 실패를 범하게 된다.

1)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간과하지 말라

단순히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죄를 죄로 미워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죄를 진정으로 죽이는 토대이다. 모든 악한 것들을 죄로 여긴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정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다른 악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특정 정욕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중생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라! 진정한 성도만이...진실로 살아있는 사람만이...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에 있다”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9절).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도만이 육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죄를 죽이기 위해 성령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 우리를 “금은 같이 연단하신다”(말 3:2-3). 그렇게 해서 성령은 ‘찌기와 혼잡물’ 그리고 ‘더러움과 피’(사 1:25.4:3)를 제거하신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본 바탕에 금과 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죄를 죽이는 일은 중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실로 하나님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죄를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심이다. 즉, 전 영혼의 회심이지 특정한 정욕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각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먼저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중생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라

죄를 죽이는 일은 진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살아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벧전 1:22).

* 원리1. 그리스도께 먼저 관심을 가져라

죄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죄를 인식시키고 죄의 중압감을 깨닫게 하는 일은 말씀 전파자들의 의무이다. 사역자들은 죄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상태와 상황을 직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

한 시즌, 또는 한 달 동안 죄와 싸울 것을 맹세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중생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죄를 죽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또한 성령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바꾸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 또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로 만든다.

* 원리2.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라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순종하지 않는 한, 죄의 정욕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절제와 과식, 그리고 과음 등 찌든 몸의 습관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상처만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의 수고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특정한 죄가 드러나는 것에만

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2) 하나님이 정욕을 허락하시는 이유

정욕은 교활하고 간교하며 반항하여 사람을 유혹한다. 사람이 정욕의 뿌리이자 근원인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성찰하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죽음의 원천인 마음을 다스린다면 정욕은 시들해져서 죽어 된다. 하지만 반항하게 되면 정욕은 특정한 방법으로 분출되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생각 속으로 파고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욕을 허락해서 우리의 태만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때때로 믿는 자들의 나쁜 점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여러 난처한 상황을 허락하신다.

(10면으로 계속)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7) 그러나 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 잠시 남가주에 오셨다가 우리 모임에 참석하셔서 고국인 그리울 때면 불렀다며 우렁찬 테너로 호소력있게 부르신 가곡입니다. 그 밖에도 혼자서 외로움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싱글대디들의 가요 혹은 판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갖는 정기모임에서 식사, 예배, 그리고 오락시간에 노래자랑 시간을 갖곤 합니다. 노래 부르기에 깊게 자리를 잡은 상처받은 정서를 깎아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다들 열창할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며 마음의 정화(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애틋하고 서러운 마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지 이게 무슨 일이나? 알코올음료는 슬픈 정서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들 노래 역시도 슬픔과 외로움에 폭 잡기게 하는 힘이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지 슬픔에 젖어들라는 말씀은 없지 않은가? 지나간 날도 남들보다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역시도 성장한 자녀를 떠나보내고 배우자 없이 혼자 있을 확률이 높은 한 부모들이 만

내 고향 남쪽바다... 꿈엔들 잊으리요... 가교파라가교파...

름 더더욱 하나님 굳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부터는 복음성가, 찬송가만 하지고 했을 때 나온 대안은 인기가요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 라면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에 대해 썩 응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작곡 자체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지어진 찬양곡을 뒤로하고 굳이 가사를 바꾸어 부르겠는가였습니다. 새롭게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미약한 신앙을 가졌거나 타종교를 가졌을 경우 자연스럽게 복음에 가까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찬양 부르기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자녀를 기르던 시절,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며 가사만 생각해도 힘이 나곤 했습니다. 한번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리라...’라는 찬양이 어디선가로부터 들렸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싱글 사역 인도자들께서 찬송이란 곡조를 붙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들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틈 얻는 대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3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446-2177 / www.lafc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177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오전예배: 오후 12:00 영어권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21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da.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실비지사랑교회 (Sea Beach Sp-Rang Church)</h3>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지 리저널 클럽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간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 10:00(화-토)오전 9:45(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오환(환산도)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 오전 9:00, 11:00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Tel: (213)500-2348, doc.kim@c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행복을 창조하는 자

연세대 교수를 지내신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마흔이 될 때까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흔이 지나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가 넘으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은 사회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명의식을 갖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1년은 365일이다. 이 날들을 보석처럼 빛나는 날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진 유리 파편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 때문이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보석처럼

빛나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 대학 교수 시절에 온 여자 유학생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얼마나 근검, 절약을 하는지 말미암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어딜 가도 절대 자기 돈을 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뜩이도 그런 잔뜩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토요일만 되면 몰래 어딜 나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하도 궁금해서 어느날 몰래 미행했는데 그 여대생이 문방구에 가서 잔뜩 물품을 사가지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고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고아들에게 그 학용품을 일일이 나눠 주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먼 발치서 바라보던 교수님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토록 돈을 아꼈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알뜰도록 자기 돈을 감을 열지 않았구나 저 고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서 자신이 여학생을 잠시나마 오해 한 것을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1-2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나의 기쁨보다도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곳에 행복이 꽃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달이 지나가면서 전쟁은 더욱 확산되어가고 러

아가 천연가스과 석유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았는지 모르나 신종변이 오미크론보다 3배나 전파력이 강하고 센 컨타우로스가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하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웃의 기쁨을 찾는 행복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한인가정상담소, 올 상반기 상담 통계 결과 발표

관계갈등 최다... 전문가의 도움 권유

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캐서린 엄)가 올 상반기 심리 상담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담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증상은 관계 갈등으로 총30%를 기록했다 (부부/파트너간 갈등 16%, 부모-자녀간 갈등 13%, 동기간 갈등 1%). 이는 지난해 23%(부부/파트너간 갈등 11%, 부모-자녀간 갈등 10%, 동기간 갈등 2%)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이전 상담소 내담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증상이 2018, 2019년은 우울증으로 각각 28%, 21%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관계갈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 2020년 27%, 2021년 23%, 2022년 상반기 30%를 기록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제니퍼 오 부소장은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적 제한으로 가족 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갈등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며 "겉으로는 관계갈등으로 표현되지만 내면에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도별 상위 기록된 주요 증상은 2019년 우울증 (21%), 관계갈등 (19%), 불안증 (10%), 외상후 증후군 관련장애 (4%)이며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부터는 관계 갈등(27%), 우

울증 (17%), 불안증(12%), 외상후 증후군 관련장애(5%)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1년에는 관계 갈등(23%), 불안증(10%), 우울증 (9%), 트라우마(4%) 순이며,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는 관계 갈등(30%), 우울증 (10%), 불안증 (9%), 트라우마(4%)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상반기 내담자는 총 185명으로 31-40세가 22%로 가장 많고 여성이 70%, 남성이 30%이다. 2021년 지난 한 해 내담자수는 총 379명으로 41-50세가 2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이 67% 남성이 32%이다.

▲ 문의: (213)389-6755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

새 책 소개



황의영 목사

'메아리치는 목회'

황의영 목사(SBM-기독교 생활개혁운동 대표)가 소책자 '메아리치는 목회'를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모든 목회자들의 희망사항은 자신이 책임지고 섬기는 교회가 활기차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상적으로 양육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리에 귀를 세우고 답답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모방한다고 기대만큼 소기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여러모로 기본적인 토양과 평소의 준비상

적용하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분서는 크게 12개로 나누어 '왜 지금 메아리치는 목회인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성경적 근거', '메아리가 없으면 왜 죽은 믿음인가', '메아리치는 목회가 왜 시급한가', '메아리치는 목회가 왜 필수적인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본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있기에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창의성을 살려서 그대로 적용하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어"

태, 그리고 진행되는 주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있기에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창의성을 살려서 그대로

적용하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분서는 크게 12개로 나누어 '왜 지금 메아리치는 목회인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성경적 근거', '메아리가 없으면 왜 죽은 믿음인가', '메아리치는 목회가 왜 시급한가', '메아리치는 목회가 왜 필수적인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본

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요약과 결론'으로 구분되어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안을 주고 있다. 기독교생활개혁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황의영 목사는 SBM의 3대 목표를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로 삼고 있으며 '무엇이 온전한 헌신인

가?',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영성 바꾸기'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sbmusa@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 형상/하나님 선교...

(3면에서 계속) 새로운 제자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Identity 정체성) +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Identifiers 식별자) = 내가 반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Image 형상)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체성(identity)'보다 '내가 하는 일(Identifiers)'이 더 먼저 되게 되면 그 결과는 왜곡된 이미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의

'Identifiers'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행위에 근거를 둔 구원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그들은 모든 행위를 다 지키며 살기에 벅차서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헌신을, 저곳에서는 봉사, 또 기도하며 벅차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앙적으로 이 어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제자도는 그

리스도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골 3:3),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존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 나의 행위들, 나의 가능성들,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골 3:3), 나를 통해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내 삶(모든 면과 영역)을 버린다. 나의 행동, 기능, 따라서 내 식별자(identifiers)는 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들이 새롭고 바른 개념의 제자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무미건조한 제자도의 관행과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방식을 탐색할 때 매우 필요한 관점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주천양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새벽별주님교회, 은누리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목회자 부부와 함께하는 찬양 집회

돌로스경배와찬양팀, 8월 4일(목) 오후 8시에 -- 돌로스경배와 찬양팀은 8월4일(목) 오후 8시 뉴저지우리교회(담임... 목사)에서 '뉴저지 목회자 부부와 함께하는 찬양집회'를 갖는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될 금번 찬양 집회에는 뉴저지 지역 목회자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문의: 201-638-1627

퀸즈장로교회, 2022 킹덤미션(Kingdom Mission) 개최
선교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라이브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킹덤미션을 퀸즈장로교회에서 8월 4일(목)부터 8월 6일(토)까지 개최한다. 이번 킹덤미션 선교에서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몰도바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선교를 진행하게 된다. 파송예배: 7월 30일(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본당

▲문의: 718-886-4040

뉴욕성실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
뉴욕성실장로교회(KAPC)는 이길호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차석희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일시: 2022년 7월 3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

▲문의: 718-309-3376, 646-641-2247

천국복음제자교육 8월 세미나

국제천국복음선교회 주최 천국복음제자교육 8월 세미나가 2022년 8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예수사랑교회(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에게는 교재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주예수사랑교회 551-655-4224, 845-499-1921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가을학기 입학 원서 접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교인 동부개혁신학교에서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원서 접수를 받는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여교역학,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기독교교육학석사(M.R.E), 선교학석사(M.Miss), 신학석사(Th.M 설교학)이다.

원서접수마감: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원서교부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사무실 (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9월 3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개강부흥회: 2022년 9월 6일(화)-9월 8일(목) 저녁 8시
▲문의: 학장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www.rptseast.org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바울에게서 사탄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풍부한 영적 계시를 통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후 12:7).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정욕의 지배를 잠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주의한 신앙생활을 정계하며 교정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삶이 개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한 정욕을 죽이려는 인간적 시도는 분명히 잘못된 발상이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정욕을 철저

하게 죽이고자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부지런하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정욕과 모든 의무 태만이 하나님께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사 43:24). 마음에 악한 생각을 그대로 잠자코 방관하면서 모든 면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그 영혼은 약해져서 믿음을 위해 힘쓰지 않게 되고 이기주의에 빠져 죄의 더러움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고통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 없이 분노하도록 자극한다.

younsuklee@hotmail.com



뉴욕성령대망회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성령대망회 7월 영성회복집회

‘사모하라’, ‘모여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뉴욕성령대망회(대표: 심화자 목사) 7월 영성회복집회가 7월 19일(화) 오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심화자 목사 사모로 김정길 목사(뉴욕엘비스장로교회) 경배와 찬양, 김경열 목사(뉴욕영안교회) 기도, 이광선 찬양사역자 특송,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회) 말씀과 축도, 이종성 권사 봉헌 특송, 안경순 목사(사랑과진리교회) 헌금기도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최창섭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사무엘상 7:8-12)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과정을 '사모하라', '모여라', '회개하라', '기도하라'의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전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옆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교회에 모여 회개 기도를 하라"라고 전했다.

뉴욕성령대망회 8월 영성회복집회는 8월 23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 (홍현숙 기자)



뉴욕에 도착한 임현수 목사

임현수 목사 뉴욕 도착 및 환영 인사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참석차 방문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임현수 목사가 7월 26일 뉴욕에 도착했다. 임현수 목사와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TMT에서 함께 섬기는 배영호 전도사도 동행했다.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 및 교협임원들이 공항에서 환영했고, 환영오찬을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에서 제공했다. 임현수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에 150여 차례 방문하며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했고,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인 2017년 8월 극적으로 풀려난

바 있다. 2022년 할렐루야대회 전인 7월 27일(수) 오후 8시에 임현수 목사를 강사로 "형제화해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1일 부흥회가 퀸즈장로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향해법"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4일간 임현수 목사와 최혁 목사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복음뉴스 창간5주년 및 종이신문 발간 1주년 기념예배

“다른 역할, 그것이 사명이고 존재 이유”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창간 5주년 및 종이신문 발간 1주년 감사 예배를 7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드렸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90여명의 목회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배와 축하기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예배는 돌로스경배와찬양팀이 인도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박희근 목사(뉴욕동원장로교회) 인도와 변창국 목사(해프지교회) 기도, 김주열 장로(목양장로교회) 성경 봉독, 한문섭 집사(선한목자교회) 특송, 김정호 목사(후리시제일교회) 설교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하순서는 육민호 목사(뉴저지주수원교회) 사회로 준비위원장 김요셉 목사(뉴욕, 예수생명교

회)의 환영사, 장동신 목사(뉴저지, 오늘의목양교회) 복음뉴스를 말한다, 김성국 목사(뉴욕, 퀸즈장로교회) 복음뉴스에 바란다,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와 뉴저지교협 전 회장 양춘길 목사의 축사, 이윤석 목사(뉴욕, 부르클린제일교회) 복음뉴스를 위한 기도,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의 인사와 광고, 김홍석 목사(뉴욕, 늘기쁜교회) 폐회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욱 발행인은 광고와 함께 감사의 인사로 "복음뉴스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독자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독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복음뉴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복음뉴스 창간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름 목회자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 이용걸 목사 초청 여름 목회자 세미나

“팬데믹 시대의 목회자 위기관리” 를 주제로 열려

RCA 뉴욕한인목회자협의회(AKRC, 회장 박희열 목사)는 여름 목회자 세미나를 7월 25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실로암교회(조대형 목사)에서 열었다. "팬데믹 시대의 목회자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세

미나의 강사는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세미나는 영생목회자훈련원에서 후원하여 참가자의 식사와 선물로 섬겼다.

1부 예배는 사회 우장환 장로(디모데목회훈련원 이사), 기도 박희열 목사(회장), 특별찬양 G2G 박승호와 이성기 집사, 말씀과 축도 이용걸 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소개 박안수 장로(디모데목회훈련원 회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세미나는 박안수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용걸 목사는 "사모가 행복해야 교회가 산다"와 "목회자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에는 많은 부부가 참석했으며 이용걸 목사는 처음으로 "목사"가 아니라 "사모"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우장환 장로(디모데목회훈련원 이사)는 전도수첩과 훈련원이 제작한 전도지로 전도의 방법을 소개했으며, 김요셉 장로(영생목회자훈련원 위원장)가 영생교회의 새생명전도 훈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선교사 복지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와 MOU 체결

교단차원에서 선교사들의 건강검진 및 의료혜택을 처음으로 제공

선교사지원재단(공동대표 유기성, 장승훈, 이사장 강윤식)은 지난 7월 20일(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기쁨병원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KAPC WMS, 이사장 유재일 목사)와 선교사 복지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해외 최대의 한인장로교단으로 1978년 당시 미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노회중 5개 노회(가주노회, 중부노회, 뉴욕노회, 필라델피아노회, 캐나다노회)의 대의원 32명이 2월 8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밴틸관에서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시작됐다. 현재 31개 노회 800여 교회가 속해 있으며, 2005년 제 28회 총회에서 산하에 세계선교회인 KAPC WMS를 설립하여, 현재 30여 국가에 10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WMS 소속 선교사들은 선교사지원재단으로부터 선교사복지카드

를 발급받고, 기쁨병원등의 지원재단 협력병원과 기업으로 부터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WMS의 유재일 이사장 (앵커리지 열린문교회 담임목사)은 오지에서 사역하는 소속 선교사들이 건강검진등 한국의 선진의료혜택과 게스트하우스등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선교사지원재단이 교단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윤식 이사장은 선교를 위해 헌신하더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제공: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권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편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피포도 출판기념 감사예배 및 26회 예술상 시상식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술을 하자”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 오른쪽 아래 타원은 이날 상을 받은자들과 관계자들)

에피포도 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가 13번째로 출간 한 ‘우리가 잊고 지낸 다섯 번째 계절’ 출판기념 감사예배와



동양선교교회 창립 52주년 부흥사경회에서 서종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창립 52주년 부흥사경회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창립 52주년 부흥사경회가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서종오 목사(동승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지훈 목사는 “오늘은 동양선교교회가 창립한 52번째 되는 날”이라며 “성도들이 지난 날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딛고 일어나 우리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김찬우 목사 사회와 찬양팀 찬양인도로 24일(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주일예배는 김광찬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이날 2022 임동선 목사 기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동양선교교회 5명, 타주 신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서종오 목사가 ‘다시 시작하자(히 3: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종오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이는 다시 시작해야 할 문제이고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직장에서의 관계는 어떤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하며 “만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했다. 서 목사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기본을 잃어버려서이다. 내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가? 기본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영광받으실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몸부림치고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서종오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강태광 목사의 신간 '기독교 문학 산책' 출판 감사예배 및 북 콘서트가 니모커피에 열렸다

강태광 목사 '기독교 문학 산책' 출판 감사예배

“교회에서 더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읽혀지길..”

월드웨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최근 '기독교 문학 산책'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에 대한 출판기념예배 및 북 콘서트가 24일(주일) 오후 2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카페 니모(1032 Crenshaw Blvd)에서 열렸다. 강태광 목사는 “성경은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하게 포함되었다”며 “기독교인문학을 잘할수록 성경이해를 잘할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교회에서 더 많은 책들이 쓰여 지고 읽혀지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사회로 시작된 1부 출판 감사 예배는 광진섭 목사(예은교회)가 ‘명령대로(전 12:9-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조유연 장로(평화교회)

가 기도했으며 이병만 장로(LA 한인재단 회장)가 축사했으며 한기형 목사(미주 CBS TV 대표)가 축도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가 서평을 했으며 김미애 전도사가 시낭송, 그리고 강태광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회 공동대표 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최수일 목사와 이관호 목사가 기도했다. 그리고 한남옥 권사(문인), 안현숙 사모, 김성연 선교사가 시낭송했다. 제3부 북 콘서트에서는 박광철 목사(솔트 하우스 선교회 대표)가 말씀을 전한 뒤 임영호 목사(기독 문인회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 26회 예술상 시상식이 23일 오후 5시 로텍호텔에서 열려 1부 예배, 2부 에피포도 13th 출판 감사 및 책 리뷰, 3부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 4부 시낭송 및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다미 전도사(사모하는 교회)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장인수 목사(갈보리교회) 기도, 임영호 목사(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설교 윤일흠 목사(비전50선교회 대표) 축도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임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역대상 29:10-14)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고뇌와 슬픔, 눈물과 기다림의 산고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소중한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살자”고 말씀을 전했다.

제2부는 출판감사와 책 리뷰로 시인 오소미 박사(에피포도 예술인협회 이사)의 환영사와 시인 오석환 박사(목사)의 축

판 된 책 리뷰를 통해 에피포도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상식을 통해 △문학상 시: 대상 정미셀(25회 시집 꽃의 문을 열다) 본상 엔젤라 정(24회 배나무 외 4편) 24회 신인상 최명희(24회 오리산부인과 외 2편) 김중미(25회 밤은 외 3편) 김성교(26회 햇빛이 휘어져 내려야 한다 외 4편) △문학상 수필: 강영혜(25회 희망의 섬) △음악상 작사: 유영애(25회 시래기 외 1편) 등이 수상했다.

백승철 목사는 “에피포도는 족자글로 시작한 사역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술을 하며 글이 삶이 되는 예술을 해 오고 있다. 이상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다들 읽고, △명예롭고 △품위가 있는 상이라”고 수상자들을 치하하며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신선함과 청량감있는 작가가 되라”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1995년 백승철 목사의 족자글로 시작된 에피포도는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사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의 명성 있는 수많은 예술인들을 탄생시켜왔다.

금번에 새로 출간된 에피포도 13번째 ‘우리가 잊고 지낸 다섯 번째 계절’에는 제 24회, 26회 에피포도 예술상 수상작품들과, 세계한인기독문인협회 독후감공모전 수상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다. 에피포도예술과학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epipodo.com 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오직예수선교교회에서 열린 북한선교의 밤 집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앞쪽 가운데가 송혜연 목사)

오직예수선교교회 북한선교의밤 집회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야”

오직예수선교교회(담임 샘신 목사)는 북한선교의 밤 집회를 22일(금) 저녁 7시에 개최했다. 이날 송혜연 목사(하나로 드림교회)가 탈북과정과 현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송혜연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나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98년은 코렐라 파티부스 장티푸스 등 질병이 북한을 덮었으며 홍수로 인해 배급이 끊어진 상황이었다”며 “그때 아버지가 중국에 무기를 만드는 기계를 판매하는 무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연변과 대 교수를 만났던 것이 문제가 되서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아버지의 죄명은 안기부원을 만났다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선교사를 안기부로 칭하며 당시 과거대 교수로부터 탈북을 권유받았었다”라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저희 가족은 북에서 부유하게 살았었고 친척들이 당간부들이 있어서 체포를 당하여 고초를 겪었어도 빨리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에서 체포당하기전의 삶을 살수 없어서 탈북하게 되었으며 98년 8월 8일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것은 교회였고 한국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우리가 만난 예수는 복 받는 예수가 아닌 모든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라며 “한국에서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북한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내 많은 북한선교단체들이 구제 개념으로 선교한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다”며 “하나님의 방법은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민족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북한을 위한 합심기도를 한 후 김훈 목사(토랜스순복음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장로협 미자립교회 기금모금을 위한 골프대회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가 주최한 제8차 미자립교회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11일(월) 오후 1시 로스 코요테 골프장에서 열렸다.

총 144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

회 수입금은 총 62,865달러로 지출 총액 30,734달러를 빼고 32,131달러가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이번 골프 대회는 김생수 회장, 정재영 장로, 김영수 장로가 공동대회장을 맡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제7회 캘리포니아 바이블컨퍼런스

제7회 캘리포니아 바이블컨퍼런스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15:5)’라는 주제로 8월5일과 6일 양일간 열린다. 일정은 5일 저녁 7시 줌으로 모이며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강사로 나서 출애굽기 강의를 한다. 6일은 오전 9시부터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리며 스가라서를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마가복음을 김성환 목사(가나공방)가 강의한다. 등록은 CABIBLE.org에서 하면 된다.

▲ 문의: (310)702-2688

오렌지한인교회 여름말씀축제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여름말씀축제를 7월31일과 8월14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일정은 7월31일(주일) 2부(오전 9시30분), 3부(오전 11시) 강사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8월14일 1부(오전 8시), 2부(오전 9시30분), 3부(오전 11시) 예배 강사 서정인 목사(한국컴패션)가 맡는다.

▲ 문의: (714)871-8320

베델교회 목회세미나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는 제1회 목회탕 THINK 목회세미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큐티’라는 주제로 8월1일(월)부터 3일(수)까지 갖는다. 세미나 강사는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 문의: (949)774-9557, (949)431-8300

생명의양식 보내기 콘서트

살림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9회 연례 콘서트를 오는 8월 7일(주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아프리카에서 부룬디, 케냐, 남아공, 우간다, 잠비아 등 5개국과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스스탄 등 2개국, 중미의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국, 남미의 페루 파라과이 등 2개국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총 17개국과 19개의 선교지 선교사들을 통해 장애인들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분들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양식 보내기’ 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 문의: (213)369-0053

선한청지기교회 행복콘서트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안민 장로, 정진희 권사와 함께하는 행복콘서트를 29일(금) 저녁 8시 본교회 잔디광장에서 갖는다.

▲ 문의: (626) 913-6611



헤리티지 블랙가스펠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헤리티지 블랙가스펠 미니콘서트

가스펠음악이 가지는 음악의 특징은 ‘축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헤리티지 블랙가스펠 찬양팀(단원: 김효식 전도사, 박희영, 이신희, 이철규) 초청 미니콘서트를 24일(주일) 오후 1시30분에 가졌다. Total Praise, ‘외에서 자유를’, ‘주의 은혜로’, ‘종이신 하나님’ 등을 불렀으며, ‘오! 해피데이’를 앵클곡으로 불렀다. 헤리티지 찬양팀의 김효식 전도사는 “2주 투어 일정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되었다”며 “가스펠음악이 좋아 부르던 자들이 모여 20년

째 찬양하고 있다. 가스펠음악이 가지는 음악의 특징은 축제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가는 날까지 예배하는 삶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도사는 “LA 투어 집회에서 은혜와 회복과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모든 한국교회를 응원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신 것을 축복한다. 뜨거운 함성과 교제 곁질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2022년 미자립교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교회들 '대면예배 금지 취소' 또 승소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 것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역 소속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지난 달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또 다시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따르면 서울 영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2주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

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 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은 2020년 12월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교회가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교회 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박성제 변



호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를 폐쇄한 것이고,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면예배금지 취소'나 '교회폐쇄 취소' 등과 관련된 본안 소송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교계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심동섭 변호사는 "서울시가 여기서 소송을 끝내게 되면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하고, 한국교회에 사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JMS 정명석 사건 엄정히 수사하고 신천지는 불법 자백하고 해체해야

한국교회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들이 지난 22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교주 정명석)와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을 규탄했다. 10개 교단이단대책위원회(10교단)이단대책협의회·회장유무한 목사)는 이날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하늘중앙교회(유영완 목사)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JMS와 신천지의 행태를 지적했다.

10개교단이단대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성도들의 증언이 나온 JMS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충남경찰청에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의 안정과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JMS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정명석을 공명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며 "공익을 위해 성폭행을 고소한 외국인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당당하고 정의로운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 정명석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또 지난 6월 한 남성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서는 "신

천지인의 죽음이 있을 때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그 원인을 한국 언론과 기독교에 돌렸다"며 신천지를 비난했다.

이어 "신천지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일에 책임지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 앞에 자신들의 불법을 자백하고 스스로 해체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이후 4년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각 교단 이단위원은 이단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했다. 이단 규정 용어의 정의를 통일했다. 이단 사역의 신뢰를 높이고, 명확한 용어의 표명으로 이단을 경계하는 데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단'은 '성경(정통신학)에 근거해 판단할 때 성경을 왜곡해 전하고 가르치며, 왜곡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 신앙화(교리의 문제)하는 사람 단체 주장'에 대해 적용한다. '이단성'은 '이단적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경우와 조사 대상 주체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과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적용하며, 반드시 교단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사이비'는 '정



통 기독교로 속여 말하는 유사종교 단체로서, 보편적 종교의 가르침과 정신을 벗어나,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속임 위장 과정 사기 등으로 인륜의 도리를 파괴하고, 사회적 위험 요소를 가진 단체 사람 주장을 일컫는다.

10개교단이단대책협의회는 "각 교단의 이단 연구, 조사, 규정을 상호 존중하며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해 이단을 규정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단 해체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하나의 의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10개교단이단대책협의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고신, 예장백석, 예장백석대신,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합신이 참여한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리 나라를 위해 국제 구호 NGO 우크라이나 4차 지원 물품 선적식 개최

국제 구호 NGO (사)글로벌생명나눔(이사장 신인항)은 2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안산빛나교회(유재명 목사)에서 우크라이나 4차 지원 물품 선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 지역 등에 지체제와 항생제, 의료기기 등을 항공으로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물품은 분유 1만 2800통, 목발 160개 등 40만 달러(약 5억 2000만원) 어치다.

이 물품은 200만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관으로 40ft 냉장 컨테이너에 담아 우크라이나로 운송한다.

선적식에 옥사나 포도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부인, 데하크 루슬란 참사관, (사)글로벌생명나눔 김정남 대표 및 장태정 이사(국토농보청기 대표), (사)미래안산 유재명 이사장(

안산빛나교회 담임), 물품을 후원한 (사)지파운데이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생명나눔 홍보대사 가수 신성이 행사 진행을 맡았다.

옥사나 포도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부인은 인사말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희 나라 국민을 위해 지원해 주신 글로벌생명나눔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께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격려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총 144만 달러(19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연내 2-3차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쟁 후 복구 및 의료기반 지원 사업에도 참여한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 국가의 긴급 재난 구호,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및 공적 의료



인프라를 지원해 해당 국가의 평균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전 세계 24개국 정부의 요청 공문을 받고, 12개국 21차례 선적을 통해 230억원 상당의 의료 물품 등을 지원했다.

글로벌생명나눔 김정남 대표는 "이번 선적에 후원자와 포장작업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까지 4차에 걸친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자가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림자 내조' 가 미덕? '일하는 사모'도 아름답다 일터를 또 하나의 사역지로 여기며 복음화 힘써

목사 사모는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림자처럼 남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사모의 좋은 본보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업을 가진 사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일터를 또 하나의 사역지로 여기며 복음화하고 있다.

대구 섬김의교회(서대승 목사) 유현정(42) 사모는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사다. 그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발령지가 계속 바뀌는 탓에 학교와 섬기는 교회가 왕복 5시간이 걸린 시절도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했고, 두 가지 일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사모의 장점으

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목회자는 직장인 성도의 일상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은종일 고된 일에 시달리다 은혜받고 싶어 교회에 오는 성도의 발걸음이 귀한 것을 알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남편에게 상기시켜주죠"

일터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다. 학교 정책을 정할 때 기독교 가치관을 투영하려 하고 기독교 사제들을 모아 격려하는 역할도 한다. 교회에서 학생의 진로를 상담하거나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일터와 교회 모두에서 사역자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일하는 사모의 소명 아닐까요?"

1995년부터 서울 극동방송에서 아나운서 PD 홍보담당자



로 종횡무진 일하는 이정민(48) 차장도 성일침례교회(윤상욱 목사) 사모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많아 봤자 1000~2000명에게 설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복음 실은 방송을 전국에 흘러보내더라고요." 이 사모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어 신학대에 진학했을 정도로 직업정신이 투철하다. 직장인, 사모, 아내, 엄마, 교회학교 사역자 등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남들보다 몇 배 더 바쁘게 일하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모들이 성도들에게 당당한 모범이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교회도 사모들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모가 늘어났지만 아직도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팽배하다. 지난해 남편이 지방의 한 교회로 청빙받은 A사모는 당회의 반대로 학교 교직원 직업을 내려놓기도 했다. 박유미 안양대 겸임교수는 "생계 때문에 일하는 사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장려하면서, 소명을 위해 일하는 사모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모 역할을 교회 편익대로 규정하려는 이중적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사모를 목사와 별개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 출판 '디지털 플랫폼' 활짝... 구독 서비스로 멀티가 가능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서울 영동교회 허신욱(49) 담임목사는 멀티형 독서가다. 책을 한 권씩 독파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양한 주제의 책을 동시다발로 읽어가며 자기 것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의 독서 패턴이 사실 이렇다. 주일 설교로 이상 문제를 택할 경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다시 읽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책도 신속하게 찾아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다종다양한 신앙 서적을 즉시 접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허 목사는 "그래서 두플러스가 잘 맞는다"고 말했다. 두플러스는 기독교 출판 선두 주자인 두란노서원이 지난 5월 전자책, 오디오북, 목회와신학, 생명의삶PLUS 등 저자 기독교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 플랫폼을 지향하며 내놓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이다. 두 달 넘게 성공적으로 최신 종이책이 대거 포함된 무제한 독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허 목사는 "두플러스 이전 일반도서 디지털

플랫폼인 리더북스, 밀리의 서재도 이용해 봤기에 디지털 책 읽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한 달 한 책'이란 월별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다양하게 검토할 때도 두플러스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이정우(43) 목사는 '북서버트' 대표다. 북서버트는 '책으로 세상을 섬기다'란 목표를 크리스천들이 독서 플랫폼을 이용해 신앙모임과 세미나를 이어가도록 돕는 모임이다. 이 목사는 "디지털보다 종이책이 익숙했지만, 독서 나눔을 위한 책 읽기 인증이나 기념사진 등은 또 다른 디지털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두플러스에선 신간을 전자책으로 쉽게 읽고 이를 모임에서 눈에 보이게 나눌 수 있는 디지털 포맷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두플러스가 향후 두란노 이외의 다른 기독교 출판사 서적으로도 확대돼 책 읽기 인증의 폭이 더욱 확장됐

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플러스 진수 두 달, 최초의 기독교 출판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효용은 목회자들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두플러스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동표(48·사진) 두란노 디지털마케팅본부장은 "목회와신학, 생명의삶 PLUS 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40~50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

두플러스는 두란노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제한 이용하는 도서플랜, QT 월간지 무제한인 QT플랜, 이 둘을 합친 스마트플랜, 거기에 목회와신학 등 깊이를 더한 프리미엄플랜까지 4가지 종류의 구독 서비스가 있다. 1차 타깃 독자는 목회자와 자녀 있는 부모, 교회 소그룹 리더 등이다. 이후 3040 목회자 및 젊은 독자 공략을 위해 커뮤니티와 클럽, 영성 세미나인 클래스 등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기는 5대까지 플랫폼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본부장은 "스마트폰으로 두플러스를 실행시켜 오디오북을 들으며 아이패드로는 전자책을 열어 읽어나가고, 동시에 노트북으로는 내가 전자책을 읽으며 밑줄 친 내용을 모아서 보며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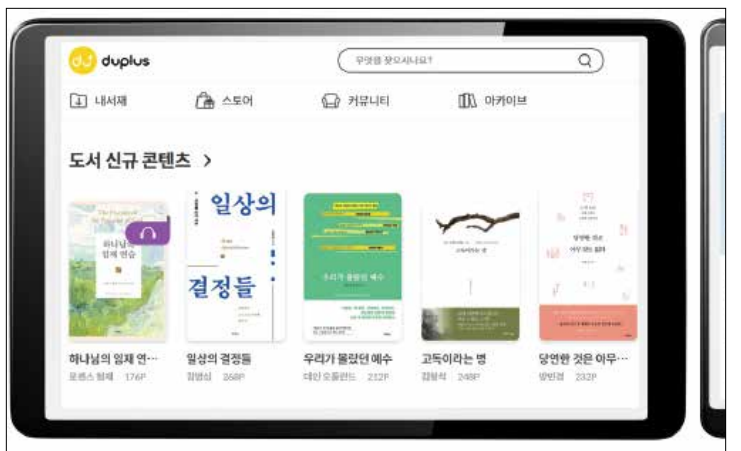
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목회자일수록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된다.

종이책 분야에서도 기독교 출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란노는 왜 매일 먼저 디지털 플랫폼에 혁신이 뛰어들었을까. 이 본부장은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에 차질이 생기자 해외 선교지 독자 비중이 높은 생명의삶, 목회와신학 등의 해외 발송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임시방편으로 PDF 서비스를 했지만, 불법 복제되는 경우가 발견됐다. 디지털 전환은 이전 하용조 은누리교회 목사 때부터 선포된 이슈였고, 두란노는 기독교 출판계에 선 드물게 전신실을 갖추는 등 IT 전문 인력이 함께해온 역사가 있다. 덕분에 지난 2년간 디지털 플랫폼 진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여 두플러스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리더북스, 밀리의 서재 등 기존 일반도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기독교 콘텐츠가 페이지 상단에 올라 주목받지 못하고 자꾸만 아래로 밀리는 현실도 이들 기독교 출판 독자 플랫폼 구축 의지를 다지게 했다. 정용희 두란노 두플러스팀장은 "코로나 초기 신천지 사태 이후 종교 콘텐츠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일이

리더북스 등에 빈번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모션 노출을 미루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신희 두란노 플랫폼사업부장은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마치 방주처럼, 기독교 콘텐츠를 모아 놓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절실했다"면서 "이것이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두란노서원의 창립 목적에도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두란노 책만 모여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학 전문 출판사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기존 리더북스와 밀리의 서재에 이미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출판사들과의 참여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교의 창 (19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상

좋은 신앙이란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핵심 교리는 5개의 Solas 즉,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이 강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불행히도 중세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가톨릭 교회와 그 사제들 손에서만 있었다. 따라서 개혁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모든 만민에게로 전해 주었다. 때마침 인쇄술이 발명되어 성경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복음은 만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로서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삶과 사역의 원천이요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상은 어떠한가?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맥(脈)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형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지상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도 실상은 그 도리(道理)와 괴리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의 연약성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도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인가?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내포된 선교 사상

로버트 스테반은 성경 전체를 구약 39권=929장=23,026절, 신약 27권=260장=7,957절, 합계 66권=1189장=30,993절로 나누었다. 이 많은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요3:16절이다. “하나

(mission)”라는 용어는 라틴어 “mitto”(mittere, missio)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이다. 그 명사형 missio는 ‘내보냄’(sending out)을 의미한다. 이 뜻은 헬라어 ‘아포스텔로(ἀποστέλλω)’와 ‘펴포(πέμπω)’에 해당한다. 아포스텔로는 구약(70인 역)에서 700 회 이상 사용되었고, 신약에 약 135 회 사용되어 있다. 펴포는 구약에 단지 26 회만 사용

: Messiah),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야에 대한 기록이다. 이로써 구약의 선교는 예표적이요 그림자적인 성격이 짙다. 스킨클러(Benkt Sundkler)는 “구약의 선교는 중심적(centripetal)이요, 신약은 원심적(centrifugal)”이라고 했다. 율법서에서 창조 기사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타락 사건은 선교의 원인은 구약에 나타난 첫 선교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부르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 세계주의(universalism)에서 특수주의(particularism)로 전환이다. 출애굽을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시내산 언약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선교 사상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기도에서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의 집으로 언급되었다(왕상 8:41-43, 사

3.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상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해 놓았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과업을 마치시고 부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지상명령을 주셨다(마 28장 18-20절, 막 16장 14-20절, 눅24장 44-53절, 요 20장 21-23절). 이 유연의 말씀은 4 복음서에 공히 기록된 것이며 특히 마태복음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역사서적인 사도행전은 한 마디로 선교 행전이다. 행 1:8 말씀에 의거 복음이 어떻게 예수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전파되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이다. 21권으로 된 서신서는 어떠한가? 이는 사도들이 흠어져 사역하면서 영감을 받아 쓴 기록이다. 사도들 중에 대표자는 바울이다. 그는 21권 중 13권을 기록했다.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 전, 후서를

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이처럼 신약성경에는 선교사상이 아주 명료하게 직선적으로 드러나 있다.

맺음말

성경(Sola Scriptura)! 이 구호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가 아니요 그것에서 멀어지면 이단으로 비화될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선교라는 대하(大河)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명령으로 바뀌었고 역사서의 증거를 거쳐 서신서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1~2). 이 거룩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구인가? 그간 우리 교회들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doing)에는 익숙했지만 선교적 체질(being)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하는 것(doing)보다 근본적 체질(being) 변화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의 선교는 단회적이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처럼 결만 번지르르하고 말 것이다. 선교의 시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과업을 기필코 이루어 가실 것이다.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jrsong007@hanmail.net

**성경은 신자들에게 삶과 사역의 원천이요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선교사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적 기능이 아니라 존재적 본질이요 사명이며 특권이다.**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성자 입장에서 보면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행 2장 1-13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다. 성령 하나님 역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다. 왜 그러한가? “선교

되었고, 신약에는 약 80 회가 사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교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 받은 자가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3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이지만 성자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냈기에 선교적 하나님임을 자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상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야(彌

56:7). 시편은 메시아 시로서 그는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음을 말한다. 피터스(George W. Peters)에 의하면 시편에는 이방의 모든 나라에도 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175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선지서에서는 구원의 범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적임을 언급하고 있다(암 1:3-2:3). 나아가 때가 차면 메시아에 의해 최종적으로 열방에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썼다. 특히 딤후 4:1-2에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 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사상은 무엇인가? 계 22:7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성결한 삶과 더불어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1강 / 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거룩(레 1-22장)

온전한 제물과 제사와 제사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과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니다.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36)으로 오셔서 친히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히 2:17, 7:28) 십자가 변제단 위에서(렘 2:16/ 골 1:20) 자신의 전부를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니다(렘 5:2/ 히 9:12). 성경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변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8-12)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고 선포하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나님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

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평의 법'을 주셨듯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며 무분별하게 취했던 음식에서 구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고전 8:8),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선언합니다. 그러므

장이 주관하는 첫 제사(레 9장)를 지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레 11장) 이후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여부를(레 12장)와 피부병에 관한 정결 여부를 결정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정하다'(레 13:6) 또는 '부정하다'(레 13:11)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정하다'하면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하면 부정한 것입니다(레 13:17,25). 제사장이 속죄한 사람을 받았습니니다(레 4:31,35, 5:10,13,16,18, 6:7, 12-15장). 그와같이 온전한

사자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레 17:1,2).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진영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먼저 회막 문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레 17:3,4). 들에서 짐승을 잡아도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이들의 생할 습관에는 전에 음란하게 살기던 제사 의식이 있기에 모든 제사를 성막 앞에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레 17:6-9)

또한 하나님은 무슨 피든지

18:1,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8:3-5, 19:37, 20:22)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말씀하신 짐승을 잡아 우상을 섬기던 관습과 피를 먹는 관습 뿐 아니라 생활속에서 근친 상간을 하지 말고(레 18:6-18, 20:11-14,17, 19-21), 월경 중 여인과 동침하지 말고(레 18:19, 20:18),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레 18:20, 20:10)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몰래에게 주지 말고(레 18:21, 20:2-5) 동성 동침을 하지 말고(레 18:22)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레 18:23, 20:15,16)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그들도 더럽혀졌고 땅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 내듯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같이 행하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 낼 것입니다(레 18:24,25,27,28).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레 18:26,29,30)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출 3:7,10/ 레 26:12).

hfamilyfa@gmail.com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곧 백성들의 삶의 구별을 위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함

물을 분별하여 말씀하십니다(레 11:1-43).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4,45)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곧 백성들의 삶의 구별을 위함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로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닌 구별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음식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순종이 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레 11:44,45, 19:2-4, 20:7,8,26).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물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온전하면 제물도 제사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 규례'(레 1-7장)와 '제사장 위임'(레 8장) 그리고 '제사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니다(마 8:3/ 막 1:41/ 눅 5:13).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여부는 '원죄'에 관한 것으로 살면서 발생한 피부병은 '자범죄'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역시나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니다.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 역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레 17:11) 짐승을 제물로 사용하고 제사 후 짐승의 피를 마시는 이방 제사의 관습에서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니다(레 17:10-16).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레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성실과 믿음의 열매 (수 14:6~15) 찬 347장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당시 85세)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을 근거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여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는 마침내 허락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방 출신의 사람임에도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의 성실과 믿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는 40세에 정탐꾼으로 뽑혔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수 14:7)"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실과 믿음으로 갈렙은 45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모습은 '성실과 믿음'입니다. 성실과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 생명을 보호하는 도피성 (수 20:1~6) 찬 585장

모든 지파에 땅을 분배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살인자는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를 받아주고, 보복자가 쫓아오더라도 그 살인자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누구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말이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그 죄인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도피성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고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생명을 누십시오.

수 다 응하였더라 (수 21:43~45) 찬 393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8개 성읍을 구별하여 레위 지파에게 나눠줌으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퍼즐의 몇 조각으로 큰 그림을 미리 보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상황, 사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는 결국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십니다. 결국은 '선하게 이루심'입니다. 그러나 조각난 퍼즐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히 보이지 않고, 명확히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봅시다.

목 소통의 힘 (수 22:10~30) 찬 220장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 여호와와의 장막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비느하스를 보내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게 합니다. 두 지파 반은 '이것은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들의 자손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여 길르앗에 사는 우리도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과 같은 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할 때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금 사랑,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수 23:1~16) 찬 301장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 놓고 유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며 지키셨고,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속히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유언합니다. 인생의 여정

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토 마지막 말 (수 24:14~18) 찬 314장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유언을 마친 후에 온 백성들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음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2-13절)에서 '내가' 혹은 '나'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만 섬겼노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 (9)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 교육은 삶 지향적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삶에 연관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삶 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사람의 본질과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해 신학적으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7).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의 구조적 특성을,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을,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세 가지 모두를 종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합니다. 즉, 사람은 동물들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지어졌으며, 수직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그 세 가지의 총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는 신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유전되는 내적인 힘으로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왜곡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순종하고 반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게 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합니다. 회심과 중생을 통한 본성의 변화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닮음(Christlikeness)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8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성경구절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한 기독교 교육자는 삶 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사람에 대한 교육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첫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기 때문에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묻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일지라도(고전 13:12)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행처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연극처럼 직접적이지만 가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처럼 간접적이고 가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독서나 강연처럼 상정을 통한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경험 자체는 교육이 아닙니다.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교육은 텔레아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생각하고 사유함으로써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배움은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배움은 태어날 때 시작되어 죽을 때 끝납니다. 스무살이든 여든살이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나이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고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은 공식적인 교육, 직업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은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단계에 따라 경험과 이해의 너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들에게 신앙고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신학적, 교육학적 측면에서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평생 기독교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예배에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세를 개발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봉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기초로하여 사람들의 신학적, 교육학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 1등상: \$500
 - ▶ 2등상: \$300
 - ▶ 3등상: \$150
 - ▶ 장려상: 0명 - 상품
 -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은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신로 편지

유럽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향한 새로운 마케도니아의 부르심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유럽으로의 부르심

필자는 체코에 도착하기 전까지 타이완과 창의적 접근 지역 AX국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동아시아 선교사역을 하였다. 주로 캠퍼스 사역을 하였는데, 많은 졸업생이 직장이나 한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 도시로 흩어졌다. 가끔 먼 미래에는 졸업생들이 거주하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이들을 격려하는 멤버 케어 순회 사역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몇 졸업생들은 직장 또는 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했다. 이즈음 창의적 접근 지역의 보안 문제로 인한 장기 사역이 불투명해지면서 비자발적인 출국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주한 졸업생들과 함께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가능성도 기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유럽 체코에 거주하는 청년과 연락이 닿았다. 타이완 선교 시절부터 친밀한 사이였다.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미래에 체코를 방문해서 목회자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와 영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안식년 동안 체코 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유럽 디아스포라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유럽에 사역자 부족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유럽 중국인 신학원(国际欧华神学院)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유럽에는 300만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중국인 인구의 5%를 차지한다. 프랑스에 60만명, 영국에 50만명,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각각 20만명, 독일과 네덜란드에 각각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필자가 느끼기로 중국 국내의 기독교인 비율은 6~8% 사이이다. 안타깝게도 유럽 중국인들의 기독교 비율은 1% 미만이다. 현재 유럽에는 370개 기독교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임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50%에 미치지 못한다. 많은 모임이 유학생 위주의 비정기적 성경 공부 모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전임 사역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서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의 많은 대도시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 유럽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의 도움 없이 자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그들은 고백한다. 그야말로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전임 사역자가 있는 교회와 부재한 교회의 차이점은 여러 방면에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300만명의 유럽 중국인을 향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

유럽 선교 지지

감사한 것은 몇 선교단체가 유럽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단체는 바로 셀로니아에 위치한 유럽중국인 신학원(国际)을 소개한다. 유럽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 섬길 미래의 인재를 배출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중국인 목회자들이 졸업하여 전 유럽으로 흩어져 더욱 건강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영국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COCM(基督 华侨布道会)단체를 소개한다. 1950년 시작된 이 단체는 현재 밀턴 케인즈 친환경 도시에 본부를 두고 4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영국 여러 도시에서 섬기고 있다. 많은 사역자가 교회 개척과 캠퍼스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론토 중국인 신학원과 협력하여 영국에서도 중국어로 신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ECM(欧洲校园团契)단체가 있다. 전임 사역자 7가정이 13개 지역 도시에 부담을 느끼고 독일 중국인 교회와 성경 공부 모임들을 섬기고 있다. 사실 독일에는 70개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임 사역자가 없으므로 계속 연약한 모임으로 성장 없이 근근이 생존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젊은이들이 목자를 기다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신론 국가지만 희망을 본다

유럽에서 무신론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체코이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거나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80%에 이른다. 공산화 시절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종교가 국가를 이용하면서 오히려 신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체코 천주교 비율은 10%이고, 개신교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체코인들은 종교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한 안후스의 후손들이다. 300년 전 모라비아 지역에서 천주교의 핍박을 받은 모라비안 신교도들은 유럽 선교 운동을 출발 지점이었던 진젤돌프 백작의 헤른후트 공동체로 찾아 들었다. 이들은 200년 간 기도의 불씨를 살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었다. 바로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의 후손이 오늘날의 체코인들이다. 현재 체코의 개신교는 이들의 신앙을 이어 받은 형제회 교단과 안후스 교단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체코교회에 600년 전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소망한다. 다시 한번 300년 전의 선교 운동의 바람이 불길 기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부흥에 프라하 중국인 디아스포라 복음교회가 불쏘시개로 사용되길 바란다.

여섯 가정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 개척

필자는 동아시아 2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유럽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먼저 선교지 리서치를 통해 프라하에 국제 부부가 많음을 발견했다. 특히 남편은 체코 현지인이고 아내가 중국인인 부부가 대부분이었다. 낭만적인 사랑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은 낭만만으로 충족되지 않았다. 특히 자녀 교육의 가치와 교육 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나빠진 가정들이 목사 부부인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체코 선교지로 오기 전, 필자는 “결혼 학교” 세미나를 참석하여 큰 감동을 받은 바 있었다. 6명의 주부들을 초대하여 8개월 동안 그들을 아픔을 들어주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자신의 가정을 다시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본 체코인 현지

남편들도 “결혼 상담” 모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끔 체코 현지 남편과 아이들을 초대하여 가족 게임, 운동회, 바비큐 파티 등을 통해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부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프라하 땅에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

드디어 2019년 10월 20일, 프라하 한인 교회당을 빌려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감동을 받았다. 1) 먼저 20년 전 타이완 선교 시절 만났던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 청년이 이제는 저의 부부와 함께 프라하에 새로운 교회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2) 그리고 주일집회 장소를 못 찾은 상황에서 프라하 한인교회가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주일 오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내어 주었다. 3) 프라하 국제교회의 중국어를 사용하는 소그룹 모임이 1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회 개척 비전을 나누었을 때 목사 선교사가 오기를 10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저의 부부가 그들의 10년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격했다. 4) 직장을 따라 프라하에 이주한 윤**집사 가정 이 피아노 반주, 봉사, 주일학교 등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 지금은 서울로 다시 돌아갔지만 개척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 주신 천사들이었다. 주님은 개척에 함께 할 귀한 영혼들, 섬기는 일꾼들, 그리고 예배 장소까지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개척

개척을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되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면 예배는 중단되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척 사역이 순탄치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런데 Covid-19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 빠른 중국인들이 시간이 남게 되었다. 아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었다. “풍성한 생명” 제자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20개월 동안 9개 소그룹으로 확장되었다. 국제결혼 부부들, 여학생, 무직업, 식당업 형제 자매들 모두 말씀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배우고 있다. 90% 이상이 처음 소그룹에 잘 참석하고 처음으로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결혼 학교” 모임은 지금까지 6기까지 진행되었다. 적지 않은 구도자들이 주님도 다시 만나고 가정도 회복되는 간증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SNS를 통해 성경 통독과 매일 기도 운동을 펼쳤다.

동방번개 이단 난민 신청

현지 신문과 현지 교회를 통해 80명의 중국인들이 종교 핍박을 이유로 체코 정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종교 핍박 때문에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하는 사실이 믿겨 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직면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 가운데 2명의 여자들이 프라하 국제교회 중국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다. 난민 한 명이 중국어를 잘하는 현지인에게 동방번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유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현지인이 SNS 내용을 전부 보여주어 그들이 동방번개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자를 치리하게 되었다. 현지 침례교회가 일자리와 기숙사도 제공했기에 현지 교회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 일을 조사하면서 전능신교가 유럽 각국에서 조직적으로 난민 신청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순수하게 난민을 도우려고 하는 유럽 교회의 도움을 이단들

이 오히려 악용하여 현지 교회가 중국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현지 법인 설립

개척 초기부터 개척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체코 사회에서 공인력 있는 단체가 되길 기도했다.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담대하게 신규 종교 법인을 신청했다. 프라하 법원으로부터 저희 프라하 중국인 교회가 신청한 종교 법인 등록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체코를 넘어 유럽에서 공인된 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교회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동료 선교사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 법인을 통해 비자 관리, 의료보험 관리, 교회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체코 중국 기독교인들이 체코 사회와 현지 교회 앞에서 숨어 있는 외국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다

1)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대면예배로 회복한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성도들을 격려하여 대면예배로 이끄는 속제가 있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코로나 때문에 13개 지방 도시를 리서치 하지 못했다. 기회가 되면 지방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한다. 3) 유럽에는 교회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한 성경공부반 형태의 150개 모임이 있다. 교회 개척을 돕기 위한 교회 개척학교를 개설하려고 한다. (16면으로 계속)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인/터/뷰

남해 사랑도의 외진 곳 외지마을을 섬기며 류동하 목사 (외지교회)

60세에 시작한 섬마을 사역, 모든 주민의 100% 복음화를 꿈꾸다

류동하 목사(외지교회)가 17일(주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말씀을 전했다. 기자는 대구수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60대 초반에 경남 통영시 사랑면이라는 외지 마을로 옮겨 그곳에서 5년째 목회와 선교사역을 이어오고 있다는 류동하 목사를 만나 특별한 섬마을 사역이야기와 그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사랑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기존 사역을 뒤로 하고, 사랑도에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희의 선교지는 경남 통영시 사랑면 외지마을에 있는 "외지교회"입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35분 정도 항해하면 사랑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도는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어 워섬, 아랫섬으로 나뉘어 있고, 배로 왕래하다가, 7년 전에 대교가 건설되었고, 이제 하나의 섬으로서 차로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진주의 남강으로부터 파이프로 연결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이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시설이 개선되어 낙후된 섬이라고 보다는 정작하고 생활함에 부족함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잘 되었고, 관광명소로서도 알려졌지만, 이곳 분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사랑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7년에 제가 60세가 넘어서게 되면서 낙도 섬과 같이 외진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노후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낙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연결되었던 곳이 바로 사랑도 외지교회를 11년 하던 대구수산교회 담임목사를 사임하고, 60대 초반에 사랑도 사역을 하기 위

하여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 지금까지 5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남은 은퇴 전까지의 시간을 보내며 선교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담임목사님이셨던 정종규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하시고, 낙도 선교의 비전을 안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 응답으로 연결된 곳이 사랑도였다고 합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교회의 형편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 건물만 홀물처럼 남아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다시 짓고, 흠여졌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연세가 총회가 정 만70세가 되어서 은퇴해야 하는데 마을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받은 영향력이 컸고,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감동하신 마을 분들이 탄원서를 내서 이 목사님을 우리 마을에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의 간절한 요청 후 사모님이 신학을 하시며 섬기셨지만, 이제는 사모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 후임자를 찾던 중 저희에게 연락이 닿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 섬기셨던 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모습은 저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신학을 하시고 낙

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시 목회만 하고 있었던 저희로서는 그 섬김과 헌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이분들과 같이 이 교회를 더욱 헌신함으로 섬겨야겠다는 결심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외지마을에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가지신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사랑도 내에서 외지마을은 외지라는 뜻의 지명과 같이 외지고, 작은 마을입니다. 총 305가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믿지 않는 마을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출석을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잘 보살펴서 더욱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모든 마을 분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여 섬의 모든 주민들이 100%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섬 중에 신안 증도는 100% 예수 믿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령도 역시 섬 중에 기독교 인구가 90% 이상 됩니다. 증도와 백령도와 같이 사랑도 외지마을도 100% 예수 믿는 섬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남아

서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연세는 많은데 육체노동이 많아서 온몸이 쭈시고 아프신 형편임에도 눈만 뜨면 일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밭농사를 하며 특산물로 마늘과 시금치가 유명한 곳입니다. 어부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두 연세가 많고 힘드셔서 어업을 못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마을 주민들 중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 마음이 많이 닫혀서 믿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라며 기도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섬에 남아있는 무속신앙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다로 배 타고 어업을 나가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 바다에 나가 전 풍랑이 불지 않고, 많은 수확과 함께 무사 귀환하게 해달라고, 무당을 불러서 2박 3일에 걸쳐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사당에서 빌고, 집에서 빌고 하는 일들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정신세계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형편



말씀 전하고 있는 류동하 목사

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주민들의 삶은 이처럼 무속신앙에 기대온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 외에는 술과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부분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성씨를 가진 씨족 중심의 사회이기에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하여 눈치 봐야 되는 그러한 점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문맹률이 높아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말로 대부분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경도 읽고, 등록도 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교회 출석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많은 부분도 전도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사역을 통해 맺은 열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 전할 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분들이었지만 갑자기 주민들의 삶은 이처럼 무속신앙에 기대온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 외에는 술과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부분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성씨를 가진 씨족 중심의 사회이기에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하여 눈치 봐야 되는 그러한 점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문맹률이 높아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말로 대부분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경도 읽고, 등록도 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교회 출석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많은 부분도 전도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묻자, △ 교회 존재 이유인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 외부 강사와 청년 봉사, 선교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역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류동하 목사의 외지교회 사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ahaha@hanmail.net, 055-649-8042로 하면 된다.

(김재상 기자)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4) 10~15명 내외의 평신도 지도자를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조그마한 훈련센터 건축을 기도하고 있다. 부지부터 구입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동유럽에서 적응하기 위한 도전

1) 어려운 슬라브 계통 언어를

배워야 한다. 물론 사역은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현지인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조금 체코어를 정복해야 한다. 2) 동아시아에 비해 동료 선교사가 너무 적다. 정서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 감사한 것은 프라하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벗이 되어 주었다. 3) 현지인들의 복음에 대한 냉랭한 반응 때문에 힘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뜨거운 반

응으로 오히려 힘이 날 수 있다.

4) 사회 시스템이 동아시아에 비해 천천히 진행된다. 하루에 해결되는 일은 잘 없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운다.

5) 동아시아에 비해 식문화가 풍성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 서양 음식도 좀 즐겨 보자!

유럽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초청

유럽은 복음을 수출하는 대륙

에서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하는 선교지가 되었다. 유럽에는 생각보다 많은 300만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섬길 사역자는 너무 부족하다. 150개 도시에 이미 자생한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다. 이들은 그들을 도울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비자발적 출국으로 인해 선교지를 찾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유럽을 새로운 선교지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말씀에 갈급한 영

혼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 서유럽은 목회 선교와 학생 사역도 병행할 수 있고, 동유럽은 도시 교회 개척이 주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 부흥의 DNA와 AX국에서의 선교의 경험이 유럽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지에 필요하다.

기도제목

1) 프라하에서 저희 부부와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 주님께서 하신 당한 선교사를 보내 주시도록

2) 이민자의 고독과 아픔을 때만저 주는 프라하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9월부터 기초 체코어를 다시 배운다. 현지 교회와 중국인 교회가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역의 도구이다.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진심, 진정 선교사

중국대학선교회 소속선교사

nnsky8@gmail.c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